

# 한국증시 시가총액 1,000조원 시대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1천조원을 돌파하며 '시총 1천조원 시대'를 열었다.

4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은 각각 909조7천200억원, 104조3천740억원으로 양 시장을 합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1천14조1천560억원을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2.91포인트(1.82%) 급등한 1,838.41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재개했고 코스닥지수도 7.31포인트(0.92%) 오른 804.02로 800선대에 다시 올라섰다.

무디스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황 절차 착수가 투자심리를 호전시킨데다 지난달 매도 공세로 일과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복귀한 것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끌었다.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은 1999년 12월22일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 이후 증시 호황이 본격화된 2005년 2월18일 5년 만에 500조원을 넘어서고 같은 해 9월과 12월에 600조원, 700조원을 차례로 돌파했다. 이후 지난해 숨고르기를 거쳐 올들어 다시

## 경기회복기대·기업실적개선 힘입어

## 주가 신기록 행진... 선진국형 진화

## '10조클럽' 종목 20개... 세계 15위권

시작된 지수의 사상 최고치 행진과 더불어 4월4일 800조원, 5월28일에는 900조원을 넘어선 후 불과 한달 남짓만에 1천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또 지난 4월24일에는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국내 총생산(GDP, 2006년 기준 848조) 규모를 추월했으며 5월말에는 미화 1조달러를 돌파하는 등 전 인미달의 고지를 잇따라 밟았다. 증시가 대세 상승을 시작하기 직전인 지난 2003년 3월17일의 시가총액 242조6천340억원에 비해서는 4년여만에 4배 이상 불어났으며 코스피지수는 당시 515.24에서 3.5배 가량 뛰었다.

다른 주요국 증시와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 1천조

원은 세계거래소연맹(WFE) 소속 51개 증시(5월말 기준) 중 15위권 수준이다.

증시 전체 시가총액 증가와 함께 개별 종목들의 시가총액도 크게 늘어나 작년말 13개였던 '시총 10조클럽' 종목들은 20개로 최근 6개월간 7개가 늘었다.

증권 전문가들은 국내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풍부한 유동성, 기업실적 개선 등이 올레 지수와 시가총액의 잇단 최고치 돌파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에 힘입어 조선, 기계업종 등 중국 관련주들이 선봉에서 시가총액 1천조원 시대를 선도했다.

김태현 삼성증권 광주지점장은 "시가총액 1천조원 돌파는 경기 회복과 기업실적 개선이 가시화되고 증시 유통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결과"라며 "시가총액 1천조원을 기준으로 할때 명목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은 118%로, 선진국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코스피지수가 전날보다 32.91포인트 급등한 1,838.41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국제 油價 일제 상승

## 두바이유 배럴당 68달러 돌파

미국의 석유제품 공급 차질 우려로 국제유가가 일제히 오른 가운데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하루만에 1달러 이상 오르며 10개월여만에 68달러선을 돌파했다.

4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3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은 전날보다 배럴당 1.07달러 뛴 68.19달러에 가격이 형성됐다.

이날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8월25일 기록한 배럴당 68.79달러 이후 가장 높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선물가도 배럴당 0.32달러 오른 71.41달러를 기록했고 런던석유거래소(ICE)의 북해산 중질유 선물 역시 0.21달러 상승한 72.9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 강세의 요인은 미국의 경제시설 가동 차질에 따른 석유제품 공급 우려였다.

국제석유시장에서는 전날 강물 범람으로 인한 미국 코퍼빌 리소스의 정유시설 가동차질 소식에 이어 하루 28만8천 배럴을 정제할 수 있는 플린트 힐즈 리소스의 정유시설이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휘발유 수요가 최고조에 달하는 미국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연합뉴스

## "국내 공기업·은행도 신용 상향"

무디스 조정 검토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절차에 착수한 데 이어 주요 공기업과 은행들은 '상향조정 검토(review for possible upgrade)' 대상으로 올렸다고 4일 밝혔다.

무디스에 따르면 등급 상향 조정 대상 공기업으로는 한국철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며 이들 공기업의 신용등급은 'A3'이다.

또 국민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한국외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 총 16개 금융기관도 등급 상향 조정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연합뉴스

## 새마을금고도 자기앞 수표 발행

빠르면 연내 빠르면 연내 새마을금고도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4일 "수표법 관련 규정 개정안이 최근 입법에 고됨에 따라 빠르면 연내에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도 자기앞수표를 발행, 취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새마을금고가 발행하는 자기앞수표 금액을 보호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 지급보장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거래 불안요인이 사라졌다고 행정부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 경영건전성, 인력규모, 시설 정도 등을 감안해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면 최종적으로 수표를 취급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가 선정된다고 행정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 현대차, 美시장서 월간 최대 판매

현대차가 미국시장에서 올초 부진을 털고 지난해 역대 최고의 월간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현대차가 1986년 미국시장에 진출한 이후 월간 최대 판매실적이다. 나아가 월간 미국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도 현대차는 역대 최고치인 3.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실적은 최근 아반떼, 싼타페, 소나타 등이 미국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싼타페는 작년 6월에 비해 37.4% 늘어난 8천460대가 팔렸으며, 소나타와 아반떼의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28.5%, 8.4% 증가한 1만5천80대, 9천617대가 판매됐다.

/연합뉴스

## 직장인 10명중 4명꼴

## "한달에 10차례 이상 솔자리"

직장인 10명 중 4명 가량이 한 달에 10여차례 또는 그 이상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가 직장인 1천100명을 대상으로 음주현황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3.3%가 '일주일에 2~3번 술자리를 갖는다'고 밝혔으며 '거의 매일 마신다'는 경우도 4.5%에 달했다.

이는 직장인 10명 중 4명이 한 달에 10여차례나 그 이상 술을 마신다는 뜻. 이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29.4%), '한 달에 1~2번 정도'(19.3%), '거의 없다'(13.5%) 등의 순이었다. 심지어 '근무시간 중에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이 45.5%나 됐다.

직장인들은 한번 술을 마실 때 보통 2차(57.9%)까지 가고, 1차로 끝낸다고 응답한 이는 21.0%, 3차 이상은 21.2%였다.

이 탓인지 '가슴 괴롭다'(33.9%), '거의 매번 과음한다'(25.2%) 등 직장인 절반 이상이 거나하게 술을 마시는 반면, '자신의 주량 정도'라고 답한 직장인은 26.9%, '자신의 주량을 거의 초과하지 않는다'는 14.1%였다.

/연합뉴스

## 경매 2000년 이후 최고 호황

올 아파트 낙찰가율 광주 88.2% 전남 8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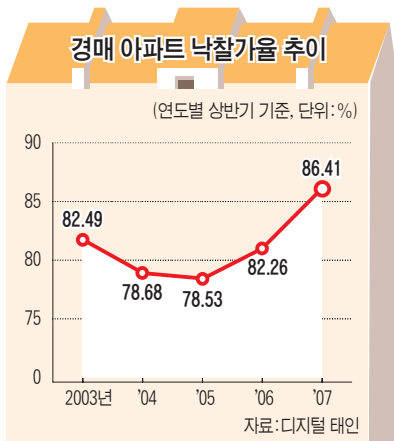
올 상반기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법원의 경매시장은 입찰 물건 수는 감소한 반면 응찰자는 크게 늘어나면서 2000년 이후 최대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경매시장에 유입된 돈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경매물건도 수도권 집중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경매정보업체 디지털데인에 따르면 올 상반기 평균 낙찰가율·낙찰률·입찰경쟁률 등은 이 회사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평균 낙찰가율은 72.6%에 달하면서 지난해 하반기(71.4%)보다 1.2% 높아졌다. 물건별로는 연립·다세대가 9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아파트는 86.4%로 2002년 상반기(86.6%) 이후 5년만에 가장 높았다. 또 같은 기간 단독주택과 토지의 낙찰가율이 각각 81.4%, 88.6%로 치솟으면서 2000년 이후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입찰 경쟁률도 평균 3.7대 1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하반기(3.6대 1)보다 높아졌다. 이 가운데 연립·다세대는 평균 경쟁률이 6.5대 1에 달할 만큼 투자자들이 몰렸고, 아파트도 4.8대 1로 역대 최고



경매 아파트 낙찰가율 추이 (연도별 상반기 기준, 단위: %)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의 경우 올 상반기에 1천107건의 아파트 물건이 낙찰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1천985건)보다 44%(878건) 줄었다. 하지만 해당 물건의 평균 낙찰가율은 88.2%로, 지난해 상반기(85.4%)와 하반기(82.9%)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전남도 올 상반기에 낙찰된 아파트 물건이 975건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2천994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낙찰가율은 88.4%로, 지난해 상반기(73.7%)와 하반기(75.3%)보다 각각 14.7%, 13.1% 급등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환율 ↓...수출기업 24조 손실"

## 삼성경제연구소... 최근 2년 영업수지 급격 악화

최근 2년간 원·달러 환율이 19.7% 절상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영업수지가 23조7천억원 악화됐다는 추산이 나왔다. 국제원자재가격도 2004년 이후 35.8% 상승하면서 수출기업의 원가 부담이 늘어나 영업수지를 32조8천억원이나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4일 '한국기업경쟁력 제점점'이라는 보고서에서 12월 결산 상장기업 585개사 중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132개사의 기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수익성은 최근 2년간 내수기업에 비해 두드러지게 악화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조사대상 수출기업은 원·달러 환율이 2004년에 비해 19.7% 절상되면서 원화표시 수출이 감소해 최근

2년간 영업수지가 23조7천억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최근 2년간 국제원자재가격이 2004년에 비해 35.8% 상승하면서 수출기업의 원가 부담이 늘어나 영업수지를 32조8천억원 악화시킨 것으로 추산된다고 연구소는 말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물가지수 상승 등 국제 수급상황 변동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은 최근 2년간 18조8천억원의 영업수지 개선효과를 얻었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연구소는 환율, 원자재가격, 국제수급 상황 등 외부요인에 의한 우리 수출기업의 영업수지 악화는 37조7천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반면, 최근 2년간 수출기업의 영업수지는 9조8천억원 감소하는 데

그쳐 기업의 내부역량 강화로 27조9천억원의 영업수지 개선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최근 2년간 우리 수출기업의 기업실적이 악화됐음에도 외부환경의 영향을 감안할 경우 기업의 내부역량은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연구소의 주장이다.

연구소는 조사대상 우리 수출기업의 1인당 매출액은 지난해 6억8천만원으로 2001년에 비해 68.1% 늘어났으며 설비투자 규모도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24.9% 늘어났고 연구개발(R&D)투자나 특허출원 건수, 마케팅 효율성과 브랜드 가치, 고객만족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생산력, 개발력, 마케팅력 등 내부역량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1000대 기업 쌓아둔 돈 364조원

## 투자환경 불확실... 유보율 작년 616%로 급등

국내 1000대 기업들이 불확실한 경영환경때문에 투자하지 않고 내부에 쌓아두고 있는 돈이 해마다 늘어 전 체 자본금의 6배 가량이 36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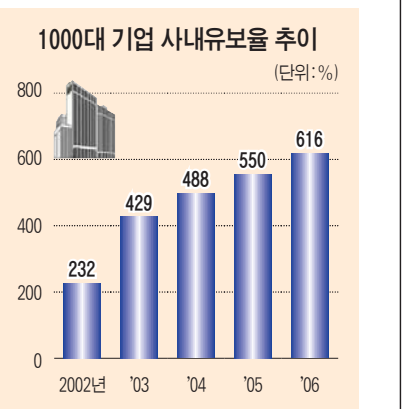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4일 발표한 '기업 유보율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매출액 1천대 기업(금융사 제외)의 사내유보율(자본금 대비 잉여금)이 2002년 232%에서 작년에는 616%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면서 기업잉여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내유보율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100대 기업의 유보율은

2002년 230%에서 작년 722%로 3배 이상 증가했고 101~500대 기업은 264%에서 473%로, 501~1천대 기업은 196%에서 327%로 각각 높아졌다. 업종별로도 대부분의 업종에서 유보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전기가스(968%→1천222%), 1차금속(581%→1천118%), 통신(966%→1천90%) 등은 1천%를 넘어섰다.

또 지난해 1000대 기업의 유보율은 자본잉여금 122조원, 이익잉여금 242조원 등 364조원으로 자본금 59조원의 6배에 달했다.

대한상의는 이와 같은 유보율의 증가는 결국 기업의 투자가 크게 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의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00대 기업 사내유보율 추이 (단위: %)

상의는 "재무적인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에 치중하는 지나친 보수 경영과 경영권에 대한 불안으로 파급된 투자저하가 결국 유보율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풀이하고 "기업들의 잉여금을 투자로 연결시키기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잉여자금을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수활성화 정책을 유지하고 경제 불안요인에 대비함으로써 투자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메가TV 보세요" KT가 4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프리 IPTV' 서비스를 내신 가운데, '메가TV 상품 설명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도우미들과 함께 시연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한국쓰리엠	[나주/화성] 각 부문별 사원모집(엔지니어/사무직/생산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6	061-330-7020
신성하이텍	5톤 납품 운전	고졸/경력3년	1600~1800	07/07	062-952-1441
케이씨씨	2007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8	02-3480-5130
HRN광주지사	[동시모집]SK텔레콤 CRM&114고객상담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7/09	062-529-2671
심포니에너지	태양광발전시스템 시공관리 경력사원	초대졸/경력10년	회사내규	07/10	062-949-7767
이디지텔	수리사, 영업, 품질관리, 제조생산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0	062-955-0801
기영미디어스	영업관리/인사총무/생산관리/구매지원관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0	062-956-9442
국성관리공사	사무/경리	초대졸/경력무관	1000~1200	07/10	062-515-4200
더존에비에셀투어	OP, 사무보조, 영업관리, 영업지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2	062-234-2744
호원	연구 개발직 및 품질관리 직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3	062-944-8311
선진일미음	회계, 사무관리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7/13	062-956-4780
씨컴	경력디자이너(3년 이상)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7/13	062-381-3051
지노스정보	[광주] 관공서 관련 전산실 운영	초대졸/경력2년	1600~1800	07/13	02-988-8304
휴인오양병원	간호사/조무사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7/13	062-720-1150

<광주지역에 512-6210 제공>